

<지난주 말씀&서론>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24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24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충성하라는 조건이 안 되면 이 말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24를 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단어 하나 하나 깊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따져서 이게 뭐냐, 이걸 뭐냐,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참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괜찮아야 합니다. 내 형편, 상황, 조건에 관계없이 괜찮아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정, 틀, 울무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라는 것, 내가 주인된 것, 내 수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름, 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은 안돼, 하는 나의 것. 내 성공, 내 이름, 내 자존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내 주인이 맞다면 나에게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 것, 나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운명, 문화, 삶의 체질화되어 있는 운명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해방되세요. 사탄에게서 해방되세요. 운명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니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기에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합니까? (계1:3)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계1:1).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1:8)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계1:5)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공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계1:18), 그 말은 인생의 주인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2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에 세 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2:1-3)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상업도시입니다. 상권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던 중심지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아데미 신상을 통해 우상이 영향을 주던 지역입니다.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1:4)

칭찬과 함께 책망이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도시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맞는데, 그래서 첫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상의 영향 속에 첫 사랑을 잃었다, 이 첫 사랑이 뭘까요? 이 첫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중심으로 가던 에베소 교회가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 걸어갈 여정 속에 나에게 주실 언약을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첫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첫 사랑입니다. 이 첫 사랑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1:5)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사탄에게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놓치면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1:6-7)

니콜라 당은 타락을 가르치고 타락한 것을 묵인하였던 이단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첫 번째, 첫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교회가 일곱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계2:8)

이 분이 누구입니까?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계2:9)

네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부요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실상은 복음 안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로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성령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사탄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조직에 굴하지 않고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처럼, 장차 고난, 환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환란에 대해서, 육신적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37, 5000종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이 계속 정권을 잡아버리면 경험할 수 없는 이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237 5000종족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아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 중직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때는 앞으로 목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십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십일동안의 환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 어려움, 위기 속에서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준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2:11)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인생을 붙잡고 환란으로 끌고 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저와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칭찬을 듣고 권면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들은 교회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3.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계2:12)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십니다. 처음에는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요, 이번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심판자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계2:13)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주의 수도로서 제우스 신상이 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중심지에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4-15)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타협을 한 자들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타협하며 행음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타락을 가르치고 성적, 종교적으로 타협을 주장할 때 여기에 넘어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계2:16)

회개하라는 것은 눈물 흘리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직접 주님이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이게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내 이름이 새겨지는구나, 여러분 이름이 정말로 흰 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할까? 어떤 권면을 받아야 할까? 그럼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내가 책망을 듣는다면 어떤 책망을 들을 것인가? 책망을 들었다면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회개는 무엇일까?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칭찬은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갈 때에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책망은 언제 들었습니까? 나, 나의 것, 성공 중심, 237 5000종족 세계복음화 방향을 놓쳤을 때 책망을 듣습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것의 권면이고 237 5000종족의 목적과 흐름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라는 내게 주신 1,3,8의 언약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할 때 주님은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약속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